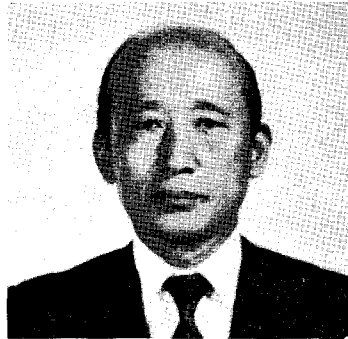


WEC初期活動 남기고 싶은 이야기

1970年度 WEC-IEC 브라질大會 最初の 韓國代表로 參加

1970. 5. 11~12
WEC-IEC大會參席
(Riode Janeiro, Brazil)
1974. 9. 23~27
第9次 WEC 總會參席
(Detroit, U. S. A.)



朴 容 澈
大韓電氣協會 副會長
(電友實業株式會社 社長)

1969年 韓國國內委員會가 WEC에 加入하여 最初로 WEC-IEC會議에 參석한 WEC 初期活動에 대한 原稿를 청탁 받았으나 20年前 상황을 상세하게 기록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 업무를 초기에 擔當한 韓電 技術부의 文獻이 韓國에너지協議會 事務局에 이관 보존되어 本稿를 草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당시의 기록을 소중히 보관해 준 실무담당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世界動力會議의 發足

世界에너지會議(WEC)는 다 아는 바와 같이 1924年 7月 英國의 生物學者이며 神學者인 Daniel Dunlop 卿의 提議로 英國 런던에서 世界動力會議(WPC)로 발족되었다. 그후 WPC(World Power Conference)는 WEC(World Energy Conference)로 비록 名稱은 바뀌었지만 65年동안 제2차 世界大戰, 東西陣營의 형성, 美蘇의 冷戰 등 激動期의 世界情勢의 變化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에너지 關聯人士들이 一결같이 회동단결하여 당초 24個國으로 발족한 이 기구가 오늘에 와서는 전세계 79개국의 會員國을 포용하는 莫強한 國際機構로 발전하였다.

이것은 世界에너지會議가 人類의 繁榮과 便益을 위하여 에너지資源의 개발, 平和的 利用을 추구한다는 崇高한 目的을 지니고 모든 나라가 체제를 초월해서 人類生活 向上을 위한 에너지問題 해결에

주력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WEC組織에는 自由陣營이나 共產陣營을 가리지않고 世界 많은나라가 加入되고 東獨, 西獨, 自由中國, 中國이 다 같이 會員國이 되어 WEC 총회와 WEC-IEC회의 및 여러 分野의 技術委員會를 통해 에너지 정보의 교환과 회원국간의 협력으로 人類의 繁榮과 便益에 공헌하고 있는 것이다.

韓國國內委員會의 加入

이와같이 世界平和와 人類繁榮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國際機構에 우리나라도 加入해서 一翼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는 하나, 그동안 우리의 형편은 日帝의 植民地 治下에 있었고 解放後의 혼란, 電力·石炭産業의 脆弱性, 國力의 限界性 등으로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나라가 世界에너지會議에 눈을 뜨게 된것은

1965年頃, 당시 WEC議長이었던 美國의 Cisler氏의 助言과 권유에 힘입은 바 크다고 생각한다.

Walker L. Cisler氏는 제2차 세계대전중 美國防省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大西양地區 아이젠하워司官의 電氣關係 幕僚로 發電艦 건조등을 建議하여 一線地區 전력문제를 해결한 분이다. 戰後 디트로이트 電力會社 社長으로 在職中 당시 6·25 動亂으로 파괴된 우리나라의 發電設備 復舊에 USOM 당국의 지원책의 일환으로 來韓하여 전력문제에 대해 諮問하는 등 설비복구와 발전함 도입으로 電力難 해결에 크게 공헌한바 있었다.

1965年 3月 26日 大韓電氣協會가 발족하면서 電氣의날을 제정, 1970年 4月10日 電氣의날과 國際에디슨誕生記念式에서 Cisler씨의 공로를 찬양하여 大韓民國 産業勳章을 수여하기도 하였다.

당시 우리는 電氣3社 통합후 제1차 電源開發 5 個年計劃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1964年 4月 1日 無制限送電을 실시하고 1967년에 釜山火力의 준공으로 발전설비는 100萬KW를 돌파하는 시기였다. 이제 우리도 電力이나 國力에서 에너지 關聯 국제기구인 世界動力會議에 加入할 바탕이 되었고, 뿐만아니라 2차·3차로 이어지는 電源開發事業에 대한 先進國과의情報, 技術 交流 및 國際協力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Cisler IEC議長의 권유와 朴英俊 社長의 적극적인 관심표명으로 世界動力會議 加入을 추진하게 되었다.

1967年 5月 WPC의 會員國으로 가입하기 위해 韓國電力을 代表로 商工部, 油公, 石公, 産銀, 大韓電氣協會, 大韓電氣學會 등 7개기관이 상공부에서 世界動力會議 韓國國內委員會 設立推進委員會를 개최하고 WPC 事務局에 加入申請書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회원국인 소련의 北韓을 의식한 책동으로 수차에 걸쳐 否決되었다가 1969年 6月 터어키 앙카라에서 개최된 WEC國際執行理事會에서 加入이 確定되었다. 1960年代末 개발도상에 있던 韓國이 에너지관련 국제기구인 WEC의 當당한 會員國의 一員으로 참가하게 된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이며 國內의 에너지문제 뿐만아니라 국제적으로도 UN과 연관이 있는 WEC를 통한 民間外交面에서 큰 몫을 담당하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WEC會員國이 된 이듬해 1970年 5月

11日 브라질 리오데 자네이로에서 개최된 WEC國際執行理事會에 最初の 韓國代表로 本人이 참석하는 영광을 가지게 되었다. 당초에는 4명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최종적으로 大韓石炭公社 李珍華 부총재와 같이 2명이 참석하게 되었다.

브라질의 에너지情勢

WEC-IEC 개최국인 브라질(Brazil)은 총면적 851萬 1,957Km²로 우리나라 면적의 약 40배에 달하는 廣大한 나라이다. 中部·北部는 아마존江과 그 支流가 흐르고 流域은 密林과 山林資源의 寶庫를 이루고 있다. 草原地帶에서는 牧畜業이 盛行하고 高原地帶에서 생산되는 커피는 전세계 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鑛物資源도 풍부하고 公業이 발달해서 세계 9位라는 中進國을 벗어난 나라이다. 그리고 人口密度는 1Km²에 13명, 우리나라의 330명에 비한다면 그 광활한 國土가 부러움기 그지없다.

브라질은 1,500年頃 포르투갈에 의해 발견된 후 1822年 브라질王國이 수립되었다가 1889年 軍部에 의해 共和政이 되고 1930年 다시 軍部쿠데타로 집권하였으나 1985年 3月 民政으로 이양되었다. 우리가 WEC-IEC회의에 참석할 당시에는 軍部の 통치시기로서 비교적 질서도 잡히고 경제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국제회의를 유치할 만한 國力을 가지고 있었다.

發電設備面에서는 1970年당시 韓國은 水力 32萬 KW, 火力 190萬KW, 內燃力 25萬KW로 도합 250萬KW였으나, 브라질은 水力 1,000萬KW, 火力 200萬KW등 1,260萬KW의 설비를 보유하고 있어 5배에 가까운 설비였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約 2,000萬KW의 발전설비를 保有한데 비해 브라질은 4,614萬KW(86年)에 머무르고 있어 성장면에서 우리나라가 長足の 발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리오데 자네이로

우리 WEC韓國國內委員會 대표 일행(李珍華·本人)은 정부의 의욕적인 경제개발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에너지분야 특히 電源開發의 성공적 수

행을 위하여 선진국의 에너지 정보, 기술개발 등의 습득과 의견교환을 위하여 부푼 꿈을 안고 1970년 5월 7일 서울을 출발하여 5월 10일 회의 개최지인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Riode Janeiro) 공항에 도착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1962년 7월 브라질과 국교가 이루어져 이곳에大使館이 설치되어 있어 大使館의 직원과 WEC브라질 國內委員會 안내원이 영접을 해주어서 지정된 코파카바나 호텔에서 旅裝을 풀고 市内를 돌아볼 기회를 가졌다.

리오데자네이로는 1960년까지 브라질의 首都였던 만큼 大西洋과 과나바라灣 연안에 위치한 교통의 중심지이며 도시가 잘 정돈되어 깨끗한 인상을 받았다. 시가는 코파카바나, 이피네마 등 아름다운 海岸을 따라 좁고 길게 뻗어있고, 港口에는 높이 약 400m의 鍾모양의 奇岩이 있어 그것이 이 항구의 표지 구실을 하고 있다. 그리고 植物園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식물원으로 自然美와 人工美가 잘 조화를 이루어 世界的인 名勝都市와 休養地로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이다. 거리 길목에서 놀고 있는 靑少年들은 모두가 불을 차고 뛰며 國民학교 학생들까지도 축구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을 가마다 볼 수 있었다. 브라질이 축구의 王國이 되고 월드컵大會에서 축구皇帝라는 펠레같은 선수를 배출한 것은 우연한 사실이 아니며 이와같은 底邊에 底力이 잠재해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하였다. 科學, 電氣, 技術분야의 발전도 專門化에 앞서 基礎를 확립하고 저변을 넓여야 한다는 평소의 생각에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되었다.

WEC-IEC 會議

1970년 5월 11일 WEC 國際執行理事會가 리오데자네이로의 코파카바나 파레스(Copacabana Palace) 호텔에서 한국을 비롯해서 38個國 80여명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개막되었다. 會議參加 登陸을 마치고 회의장에 들어서니 회의장 전면에 우리나라 太極旗가 여러나라의 國旗와 더불어 게양되어 있어 당시 국제기구에 進出이 많지 않았던 시기에 국제 무대에 회원國의 一員으로서 國威를 宣揚하게 된대 대해 무한한 自負心을 갖게 하였다.

특히 회의가 개막되자 Cister議長의 歡迎辭와 아울러 韓國이 會員國으로 加入되어 이자리에 참석한 것을 환영한다는 찬사를 보내 주어 더욱 큰 보람을 느꼈다.

會議의 議案은 ① 報告事項 ② 前年度 會議의 未決事項 ③ 新規處理事項 등 3개부문에 걸쳐 26개 案件을 심의 처리하는 마라톤會議였다. 특히 보고 부문에 에너지와 관련된 주요의제는

- 對國際聯合 活動關係
- 對國際原子力協力 活動關係
- 에너지資源 調査
- 大規模 輸送手段에 의한 장거리 熱에너지운반 연구위원회 구성문제
- 汚染에 대한 특별연구위원회 설치등이 보고 토의되어 에너지 개발 이용에 先導의인 역할과 국제협력에 注力하고 있는 일면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 會議에 참석하고자 먼길을 온 自由中國代表는 會議 卓上 名牌에 Taiwan이라고 記名되어 있는것을 알고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고 회의장 밖에서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自由中國은 우리의 盟邦일 뿐 아니라 南北이 분단된 우리의 立場과 같은 처지에 있어 同病相憐의 애처러운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이문제의 해결을 위해 自由中國代表와 같이 Cister議長을 만나 이에 대한 是正을 호소하였으나 主催國의 태도, 共產陣營의 압력등이 작용을 하고 있어 그 이상 어찌 할수가 없어 其他活動에만 참여하였다. 會議의 內容에 대해서는 本人이 자료를 수집하여 전달하고 회의경과를 상세히 알려주었으나, 국제사회의 냉혹함을 다시 한번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韓國이 WEC 會員國으로 加入하게되자 北韓에서도 加入申請을 할것이라는 예측이 國內에서 회의참가 전부터 일어나 우리는 新規會員加入 案件이 上程될때 긴장을 하였으나, 리비아共和國 加入案만이 처리되고 北韓問題는 거론되지 않았다.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北韓이 WEC에 가입되지 않고 있는것을 보면 아직도 에너지개발에 대한 餘力과 關心이 없는것으로 풀이된다.

그밖에 副議長選出, 會費問題, WEC旗, 제정문제 등이 토의, 결정되고 다음 會議開催國을 아래와 같이 선정하였다.

- 1971年 8차 WEC총회 루마니아
- 1972年 WEC-IEC회의 뉴질랜드
- 1973年 WEC-IEC회의 아르헨티나
- 1974年 9차 WEC총회 美國

그후 美國 Detroit에서 개최된 제9차 WEC총회에
본인이 다시 참가하여 총회의 규모와 분위기를 파
악하는 기회를 가졌다.

産業視察

本會議 日程이 다 끝나고 主催國이 계획한 Study
Tour에 참여하여 Furnas 水力發電所, Jupia 水力
發電所와 건설중인 Ilha Solteira 水力發電所를 견학
시찰하였다.

브라질의 中南部에 위치한 이 발전소는 모두 水
資源이 풍부하고 立地的 條件이 좋아 大容量 水力
發電을 개발하여 Furnas水電은 설비용량이 120萬
KW이며 Jupia水電은 140萬KW로 당시 우리나라
총설비용량 250萬KW와 같은 설비였다. 그때 우리
나라의 최대 水力發電인 華川水力發電所가 10萬
8,000KW에 불과했는데 비해 그 10배에 달하는 설
비였으니 웅장한 댐과 광활한 저수지의 장관에 압
도당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건설중인 Ilha Solteira 水電은 그보다도
배가 넘는 320萬KW의 설비를 계획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이 발전소가 완공되면 水力 發
電의 비중이 더욱 커지고 관광자원으로도 각광을
받을것이 예견되었다. 당시 브라질의 水力, 火力
비중이 10:2였으니 天惠의 水資源으로 化石燃料의
소모없이 발전이 가능하므로 低廉한 電力料金 등
부러움을 금할수 없었다.

	Ilha Solteira	華川水力
流域面積	377,340Km ²	3,901Km ²
總貯水量	211억 6,600백만m ³	10억 2,000만m ³
有效貯水量	128억 6,000천만m ³	6억 6,000만m ³
댐 길이	우댐 3,985m 좌댐 1,240m	435m
댐 높이	우댐 54m 좌댐 40m	81.5m

5月 11일부터 1週間の 會議 日程을 모두 끝마
치고 5월 18일 브라질의 南部都市 상 파우로(Sao
Paulo)를 거쳐 귀국하였다. 韓國은 브라질과 1962
년에 修交가 이루어지자 1963년에 移民協定을 체
결하여 우리 僑胞들이 이곳에 많이 정착하고 있어
이들에게 故國의 소식을 전하며 환송을 받고 떠나
게 된것은 會議에 참석한 성과외에 또 다른 수확
이었다.

